

대한양계협회소식



본회 시무식

새해 양계산업 힘찬 출발 다짐



본회는(회장 최준구)는 무자년 1월 2일 본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가지며 새해 첫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오봉국·박근식·정선부·김교석 고문, 김선웅 부회장, 본회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최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를 뒤로하고 올해 무자년 쥐띠 해를 맞이하여 쥐의 장점을 살려 상황에 맞게 기민하게 대처하고 부지런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본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26일 축산회관에서

2008년 본회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결산과 2008년도 추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금년부터 3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제18대 회장이 선출된다.(선고공고 99페이지)

본회 성명서 발표

농촌진흥청 존치 주장

본회는 지난 18일 농촌진흥청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안 중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성과를 이룩하며 농축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피력하여 농촌진흥청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불황지속 우려에 대책방안 논의**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종) 월례회의가 지난 9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도 육용종계 생산잠재력은 7,424천수로 전년대비 백만수 이상 증가가 예견되며 2월~3월 생산잠재력도 1,543천수로 2007년 동기간(1,133천수)대비 36.2%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종계산업의 불황지속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 증가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불황타개를 위한 방안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생산비 증가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계산업 관계자들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축산정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은 관련 종계농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검정실적이 많은 종축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지원조건으로는 융자 7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30%로 개소당 최대 2,50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에 사육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 축사시설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란분과위원회
농장내 HACCP 신중히 접근해야**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 신년 첫 월례회의가 지난 7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분과위에서는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산란계농장 HACCP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농장 내 HACCP 적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료, 종계, 유통단계까지 HACCP가 전제되어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계에서부터 HACCP적용이 선결되어야 하며, 계란유통 구조에 적합한 시행지침 마련의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증제 시행에 따른 미인증 농가 역차별 우려와 함께 인증비용을 농가에 전담하면서도 이익은 유통에서만 가져가는 모순점도 개선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한편 산란계 임의자조금과 관련, 올해에도 수당 10원 거출을 결의했으며 자조금 납부 활성화를 위해 100여개의 대군농장에 대해 협조요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의무자조금사업 진행 늦춰지지 않도록**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



(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12월 닭고기 수입 실적은 4,409톤으로 전월 닭고기 수입량 대비 34.6% 감소, 전년동월 대비 20.2% 감소하였고, '08년도 7월 생산잠재력은 51,335천수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육계의무자조금사업 진행상황은 지난 11월 서면결의서를 통해 대의원회 선출직 관리위원 및 감사를 확정 한 바 있고, 이후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거출비율, 도계실적보고 투명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지지부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연직관리위원 선출(건) 등을 선추진해 사업진행의 가속도를 붙여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일 계육산업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도계육 시세 적용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다룬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계시세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육계의무자조금 실무자회의 관리위원 구성 후 거출비율 논의해야

육계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는 구랍 26일 본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위는 당연직 관리위원 선정(안) 논의



와 자조금 거출비율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농림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서면결의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뚜렷한 진행사항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농림부 주관으로 축산단체장과의 모임을 통해 논의사항들을 조율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거출비율도 수당 5원씩 거출키로 돼 있으나 각 계열사와 농가간의 합의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과 사전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당연직 관리위원 구성에 있어서 거출비율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의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본회 김동진 부장, 농림부 장관상 수상



본회 홍보팀 김동진 부장(본지 편집장)이 구랍 31일자로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동 진 부 장 은

1991년 본회에 월간양계 편집부 기자로 입사하여 양계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05년부터 홍보팀장과 월간양계 편집장의 직책을 맡아 양계산업 발전과 회원서비스 강화에 앞장 서왔다.

또한 질병업무를 맡아 시를 비롯한 양계질병 예방 홍보 활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부장은 현재 한국가금학회 홍보위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선택평가회 평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본회 김재홍 대리, 과장 승진발령

본회는 지난 1일부로 경영지원팀 김재홍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발령하였다. 김재홍 과장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본회 대리로 임명되어 경영지도팀을 거쳐 경영지원팀에서 종계DB구축사업과, 농가지도사업을 담당하며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기여해 왔다.



지회 · 지부소식

광주채란지부

이만형 전지부장 '아름다운 농장' 선정

광주채란지부(지부장 이영재) 전 지부장을 지낸 이만형 사장이 (주)축산신문사가 주최한 축산인 신년교례회에서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부문



본회 회장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는 임상규 농림부장관을 비롯 홍문표 국회의원 및 축산단체장, 전국의 축산인들이 모여 새해의 교감을 갖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식전 행사에 앞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이만형 사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2세들의 모임인 다한영농조합법인 조합장으로 조합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원주채란지부

지부장 변경

원주채란지부는 지난 12월 20일 정기총회를 통해 안기선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안기선 회장은 지부운영의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의 권익보호에 힘을 쏟을 것을 밝혔다.



▲ 안기선 지부장

지 부 장 : 안기선
부지부장 : 박병곤
총 무 : 문희균